

##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박덕유\*

### 1. 서론

성경의 중심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을 기록한 공관복음은 대부분 예수님과 제자들, 병자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무리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높임법의 문법 구조가 없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는 높임법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성경의 화계를 분석·고찰함으로써 올바른 화계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가지 성경인 『개역개정』(1998), 『새번역』(2004), 『공동개정』(1999), 『성경』(가톨릭, 2005)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공관복음서 중 비유의 말씀이 적어 다양한 화계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화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룬 내용이므로 복음서에 나오는 발화 역시 대부분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예수님 외에 화자와 청자가 등장하는 발화도 있어 이 부분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국어의 화계는 높임법의 일종인 상대높임법에 나타나는 등급(scale of politeness)의 표현이다. 높임법은 대우법, 경어법, 존대법, 존비법 등 학자에 따라 그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높임법은 문장의 종결형태의 문법 요소에 의한 분류로 주체를 높이는 주체높임법과 청자인 상대를 높이는 상대높임법, 그리고 서술의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객체높임법이 있으며, 어휘요소에 의한 높임말과 낮춤말이 있다. 성기철(2007)은 화계는 등분이란 말로 쓰여 오다가 근래에 화계가 일반화되어 가는 경향이라고 하면서 문장의 종결형태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표현되며, 청자에 대한 화자의 대우 등급을 의미한다고 했다.<sup>1)</sup> 학교문법(2003)<sup>2)</sup>에서는 국어의 높임법 가운데 가장 발달한 것이

\* 인하대학교 교수, 국어학.

상대높임법으로 이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인데 주로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며,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고 했다.<sup>3)</sup>

박덕유(2013)는 학교문법의 화계 체계를 기저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sup>4)</sup>

<표 1> 국어 높임법의 화계 체계

	격식체				비격식체	
	높임말		낮춤말		높임말	낮춤말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	두루높임	두루낮춤
문장의 종류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평서형	-하니다/습니다 -(-으)십니다	-(시)오 -소	-네 -(-으)네	-다 -ㄴ/는다	-어(아/여) 요	-어(아/야) -지, 걸, 게, 데, 든
의문형	-하니까?/습니까? -(-으)십니까?	-(시)오?	-나? -는/(-으)는가?	-니? -냐? -(-느)냐?	-어(아/여) 요?	-어(아/여)?
명령형	-(으)십시오	-(으)시오 -오 -구려	-게	-어(아/여) 라 -(-으)렴 -려무나	-어(아/여) 요	-어(아/여) -지
청유형	-(으)십시오	-(으)비시다	-세	-자	-어(아/여) 요	-어(아/여) -지
감탄형	-	-는구려	-는구먼	-는구나	-어(아/여) 요	-어(아/여) -지, 군

1) 성기철, 『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교육』(서울: 글누림, 2007), 123-131.  
 2)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 『문법』(서울: 두산, 2003), 173.  
 3) 성기철은 문법적인 면에서 보면 최고의 존대 대상에게는 최상의 존대 표현이 되어야 이상적인 문장이 될 것이지만, 이는 격식성이 강화되어 관련 인물 사이의 위계성, 소원성을 높여 주고, 친분성을 약화시킨다고 했다. 성기철, 『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교육』, 26.  
 4) 박덕유, 『한국어 문법의 이론과 실제』(서울: 박문사, 2013), 93.

## 2. 국어 화계의 유형과 특성

높임법은 주로 화자와 청자, 그리고 주체나 객체에 해당하는 제삼자에 의해 성립된다. 따라서 우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문법 규칙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이나 계급, 직장 서열 등 사회적 지위에 따른 수직적 관계에서는 보다 엄격한 격식체가 요구되지만 개개인의 친분 정도에 따른 정감의 표현일 경우에는 비격식체를 사용한다. 그러나 단순히 문법적인 요소에 의해 정형화되기보다는 주체와 객체 등 제삼자가 화자와 청자와 어떤 관계에 있거나, 제삼자가 대화 장면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주변 상황 등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그리고 화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른 화자의 심적 태도나 의도 등 담화론이나 화용론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문법 체계로 제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서정수(1984)는 대우의 기능을 인간적 상하 관계의 표출, 횡적 친소 관계의 표출, 인간 품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 했고<sup>5)</sup>, 성기철(2007)은 대우의 기능을 계층적 질서의 유지와 친소 관계의 유지를 들어 설명했다.<sup>6)</sup> 따라서 인간관계의 수직적 질서를 유지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격식체의 표현이며, 인간 상호간의 수평적 질서를 유지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비격식체의 표현이므로 둘 모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격식체는 4개의 화계로 ‘하십시오, 하오, 하계, 해라’ 등인데, 젊은 세대에서는 ‘하오’와 ‘하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더욱이 하오체는 예사 높임이지만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사용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나 오히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곤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비격식체의 해요체이다. 고영근(1974)에 의하면 해요체가 1930년대 이후에 독자적으로 등장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는 하오체와 합쇼(하십시오)체의 한 보충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sup>7)</sup> 이는 최현배(1959), 김석득(1966)에서도 해요체를 하오체로 분류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sup>8)</sup>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는 하오체가 예사높임으로 사용되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화계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박승빈(1935)이나 정렬모(1946)에서 해요체를 하오체와 동일시하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sup>9)</sup> 이에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격식체와 함께

5) 서정수, 『존대법 연구』(서울: 한신문화사, 1984), 7.

6) 성기철, 『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교육』, 27-28.

7) 고영근, “현대국어의 존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1974), 84.

8) 최현배, 『우리말본』(서울: 정음사, 1959), 256-264; 김석득, “국어형태론”, 『연세논총』 4 (1966), 6-7.

9) 박승빈, 『조선어학』(서울: 통문관, 1935), 343; 정렬모, 『신편 고등국어문법』(서울: 한글문화사, 1946).

사용할 경우에 하십시오체와 하오체의 중간으로 보는 견해로 신창순(1962), 이익섭(1974), 박영순(1985) 등을 들 수 있다.<sup>10)</sup> 그리고 성기철(2007)에서는 해요체는 하오체와 하십시오체에 통용 가능한 두루높임으로 해석함으로써만 그 성격이 이해될 수 있다고 하고<sup>11)</sup>, 두 화계에 두루 쓰일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대우의 엄격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기피되고 대신 비격식성이 강하고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sup>12)</sup>

## 2.1. 하오체와 하계체

### 2.1.1. 하오체

하오체는 예사높임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세대에서는 사용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오체는 예사높임이지만 실제로 화자와 청자 간의 대화를 살펴보면 상위자가 하위자에게는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하위자가 상위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위자가 상위자에 대한 높임은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만 가능하다.<sup>13)</sup>

### 2.1.2. 하계체

하계체는 예사낮춤으로 나이 든 세대에서는 사용하지만 역시 젊은 층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예문 (1)에서처럼 청자가 아랫사람이거나 친구나 가까운 동료일 경우에 어느 정도 격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 (1) ㄱ. 어서 오게. 그간 잘 지냈나?  
 ㄴ. 덕분에 잘 지냈네.

10) 화계를 6개의 일원적 체계로 보는 것이다. 신창순, “현대국어 존대법의 개설”, 『문리대학보』 5 (1962), 460; 이익섭, “국어경어법의 체계화문제”, 『국어학』 2 (1974), 60; 박영순, 『한국어 통사론』(서울: 집문당, 1985), 260. 이맹성(1973)에서는 ‘하십시오-해요-하오-하계-해-해라’로 구분하여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하십시오체’와 ‘하오체’의 중간으로, 그리고 역시 비격식체인 ‘해체’를 ‘하계체’와 ‘해라체’의 중간으로 보았다. 이맹성, “Variation of Speech Levels and Interpersonal Social Relationship in Korean”, 『한산 이종수 박사 송수논총』 (1973), 111.

11) 성기철, 『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교육』, 121-122.

12) 국어의 화계를 격식체 4화계(하십시오-하오-하계-해라)와 비격식체 2화계(해요-해)로 구분한 것은 성기철(1970)을 시작으로 고영근(1974), 서정수(1984)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성기철, “국어 존비법 연구”, 『논문집』 4 (1970), 35-57; 고영근, “현대국어의 존비법에 대한 연구”, 84-91; 서정수, 『존대법 연구』, 51-54.

13) 이익섭(1974)에서는 하오체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화자보다 지체가 낮은 사람이나 별로 존대하고 싶지 않지만 약간 대우하는 화계로 사용되어 높임의 화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익섭, “국어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1974), 60.

## 2.2. 청소년층의 화계

요즘 젊은 청소년들의 화계는 격식과 비격식을 구별하여 사용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오히려 격식체보다는 ‘해요-해’의 비격식체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사용하는 화계를 무조건 수용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군대라는 특수사회가 존재함에 따라 격식체가 필요하고, 나아가 회사에 들어가서도 상사에 대한 화계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지윤(2009)은 존대법 번역을 위한 요소들 중 ‘독자들의 요구’가 필요하며, ‘독자의 의도’는 과거의 독자 공동체와 현재의 독자 공동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sup>14)</sup>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하오체와 하계체를 강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언어 변화 현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에 격식체의 ‘하십시오-해라’의 화계와 비격식체의 ‘해요-해’의 화계에 대한 적절한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sup>15)</sup>

## 2.3. 화계의 연속성

발화가 둘 이상 연속될 때 단일한 화계가 연속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화계가 사용되기도 한다.<sup>16)</sup> 현실 언어 사용을 감안하여 ‘격식체+격식체, 격식체+비격식체, 비격식체+비격식체, 비격식체+격식체’ 등 사용 가능한 경우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             |           |           |
|-------------|-----------|-----------|
| ① 아주높임-아주높임 | 아주높임-두루높임 |           |
| ② 예사높임-예사높임 | 예사높임-두루높임 |           |
| ③ 예사낮춤-예사낮춤 | 예사낮춤-두루낮춤 |           |
| ④ 아주낮춤-아주낮춤 | 아주낮춤-두루낮춤 |           |
| ⑤ 두루높임-두루높임 | 두루높임-아주높임 | 두루높임-예사높임 |
| ⑥ 두루낮춤-두루낮춤 | 두루낮춤-예사낮춤 | 두루낮춤-아주낮춤 |

14)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37, 재인용.

15) 성기철(2007)은 ‘하오체’와 ‘하계체’는 적어도 30대 이하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하십시오체’도 그 사용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대신 ‘해요체’의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간다고 했다. 아울러 조사 ‘-께’의 사용 빈도도 축소되어 가는데 이는 단순화를 지향하는 언어 변천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동시에 수직성을 한 특징으로 했던 과거에 비해 수평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부합해 가는 언어 변천의 한 현상이라고 했다. 성기철, 『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교육』, 390-391.

16) 동일한 담화의 발화에서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위계성이 지나치거나 친근감이 지나칠 경우 상호 보완될 수 있으므로 때로는 화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 2.4. 화계 설정의 원리

성기철(2007)에 의하면 수평적 관계에서는 ‘하십시오→하오→하계→해라’ 방향으로 격식성이 낮아지고, 수직적 관계에서는 ‘하십시오-해라 → 하십시오-하계 → 하십시오-하오’의 순으로 격식성이 낮아진다고 했다.<sup>17)</sup> 문제는 아주높임의 ‘하십시오체’를 두루높임의 ‘해요체’가, 아주낮춤의 ‘해라체’를 두루낮춤의 ‘해체’가 대신한다는 것이다.

- (2) 교수: 영화는 이제 집에 가도 돼.(해체)  
 영화: 예, 알겠습니다.(하십시오체)  
 예, 알겠어요.(해요체)
- (3) 교수: 철수야, 너 어디 가니?(해라체)  
 철수: 예, 저는 집에 가요.(해요체)  
 예, 저는 집에 갑니다.(하십시오체)

(2)의 예문에서는 교수의 발화 해체에 대해 영화의 발화는 해요체와 하십시오체 모두가 적합하고, (3)의 예문에서는 교수의 발화 해라체에 대해 철수의 발화는 해요체보다는 하십시오체가 더 적합하다. 그 이유는 교수와 학생 간의 어느 정도 위계적인 격식이 필요하지만 이름을 부른 친근감과 남자와 여자의 화계가 다른 점 등 복잡한 요소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제 언어 사용의 화계를 분석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엄격한 위계 질서가 필요한 군대 등 특수 집단에서는 격식체가 필요한 것처럼, 과거 삼국시대나 조선 시대 등 당시 언어 사회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그때의 화계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의 언어 사회를 정확히는 고증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위엄과 격식을 고려한 화계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의 화계를 설정하는 데 몇 가지 주요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계 분석 요건은 문법적 원칙에 의한 화계를 기본으로 하되, 장면과 상황에 따른 담화론과 화용론적 화계를 적용한다.<sup>18)</sup>

둘째, Noss(1977)의 번역을 위한 요소<sup>19)</sup> 중 과거와 현재의 독자 공동체 모

17) Ibid.,146.

18)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나이, 지위, 성별, 공적, 사적 등)를 기본으로 하되, 대화의 장면과 상황, 화자의 심리적 태도, 사회·문화적 활동과 요인 등을 고려한다.

19) P. A. Noss, “Dynamic and Funtional Equivalance in the Gbaya Bible”, *Notes on Translation* 11:3 (1977), 22.

두를 포함하는 높임법 화계를 적용할 것이며, 독자들의 사회 상황과 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하되, 원천 본문의 주요 기능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임법의 화계를 사용한다.<sup>20)</sup>

셋째, 마가복음의 화계를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예수님과 관련된 화계는 격식체를 사용하고, 예수님 외의 화계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함께 사용한다.

넷째, 예수님과 관련된 화계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화계를 설정하되, 화계의 격식성 정도에 따라 ‘예수님↔무리’(하십시오↔하십시오), ‘예수님↔종교지도자들’(하오↔하십시오), ‘예수님↔병자들’(하오/해요↔하십시오), ‘예수님↔제자들’(해라↔하십시오) 등으로 하고, 예수님과 특정 개인의 경우에는 ‘하오↔하십시오’의 화계를 사용한다.

다섯째, 화계의 연속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한 화계를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실 언어 사용을 감안하여 ‘예사높임+두루높임’처럼 격식과 비격식의 화계를 사용한다.

### 3. 한국어 성경의 화계 분석

본고에서는 한국어 성경의 화계를 분석하고자 4권의 성경인 『개역개정』(1998), 『새번역』(2004), 『공동개정』(1999), 『성경』(가톨릭, 2005)을 선정하여 화계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4개의 성경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현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신구교가 공동으로 번역하였고, 가장 최근에 나온 성경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sup>21)</sup> 그리고 공관복음서 중 “마가복음”은 뚜렷한 주제의식을 갖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었으며, 비유의 말씀이 적어 화자와 청자의 화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룬 내용이므로 복음서에 나오는 발화 역시 대부분 예수님

20) 조지윤(2008)은 청자 존대법 번역을 위해서는 원천 본문의 언어 형식이나, 대상 본문과의 의미론적 혹은 기능적 상응보다는 언어의 사회언어학적이고 화용론적 사용에 초점을 두으로써 성서 인물들의 대인관계, 대화 상황의 공식성 여부, 성서문화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조지윤, “산헤드린에서 진행된 예수의 재판-청자 존대법 번역 문제-” 『신약연구』 7:4 (2008), 624.

21) 『개역개정』(1998)은 현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고, 『공동개정』(1999)은 신구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개정판 성경이다. 그리고 『새번역』(2004)은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2001)을 좀더 쉽고 친숙하게 부를 수 있도록 바꾼 성경이고, 『성경』(가톨릭, 2005)은 신구교가 함께 만든 『공동번역 성서』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가톨릭 공용 성경으로 채택한 가장 최근에 나온 성경이다.

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예수님 외에 화자와 청자가 등장하는 발화도 있어 이 부분도 다루고자 한다. 이에 예수님과 관련된 화계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화계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 3.1. 예수님과 관련된 화계 유형과 분석

먼저 예수님과 관련된 발화 유형은 크게 ‘예수님-제자들, 예수님-병자들, 예수님-무리(사람들), 예수님-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을 이룬다. 이외에 특별한 경우로 ‘예수님-대제사장, 예수님-빌라도’와의 발화가 있다. 이에 대한 화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마가복음에 나타난 화계 유형과 분석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 (가톨릭)	화계 제안
예수⇔제자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예수⇔병자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하오 해요 ←하십시오
예수⇔무리 (사람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십시오
예수⇔종교 지도자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하오 ←하십시오
예수⇔대제 사장	→해라 ←해라	→하오 ←하오	→해라 ←하계	→해라 ←하오	→하오 ←하오
예수⇔빌라 도	→해라 ←해라	→하오 ←하오	→해라 ←하계 <sup>22)</sup>	→해라 ←하오	→하오 ←하오
예수⇔하나 님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예수⇔귀신 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예수→바람, 무화과나무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22) 빌라도는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막 15:2) 하고 묻는데 ‘-ㄴ가?’는 ‘하계체’의 의문형 어미이며, ‘너’는 해라체에 사용하는 2인칭 대명사이므로 ‘그대’로 바꿔야 한다. 각주 26) 참조.



예수님은 제자들, 병자들, 종교지도자들, 귀신들, 자연물, 그리고 한 두 사람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주낮춤말인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 아주높임말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한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에 초점을 두었기에 보다 엄격한 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최고 위치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관리하던 정치지도자인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새번역』에서만 예수님은 예사높임인 ‘하오체’를 사용하고 다른 성경은 모두 ‘해라체’를 사용했다. 반면에 대제사장과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께 ‘해라(개역개정)-하오(새번역)-하계(공동개정)-하오(가톨릭성경)’를 사용했다.<sup>23)</sup> 아마 이는 담화분석이 필요할 듯싶다. 이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공회에서 재판받을 과정과 과정에서 당시 산헤드린공회의 최고 대표인 대제사장에게 신문(訊問)을 받으시는 상황, 그리고 결박되어 끌려가 최고 판결자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예수님은 비록 피고인으로 이들 앞에 섰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당당한 입장에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대응하는 화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제자들, 귀신들, 자연물 등은 예수님과 수직 관계나 명령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격식의 원리가 분명한 ‘해라↔하십시오’가 타당하지만, 병자들, 종교지도자들, 무리(사람들)에 대한 화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자비와 위로의 주님이신 인격자로서의 모습도 갖추신 분이므로 친밀감과 정겨움의 비격식의 화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1.1. 예수님과 제자들

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제자(들)’과의 대화이다. 개인적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시몬, 안드레, 시몬 외, 레위(마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룟 유다’가 있고, 제자 수와 관련된 것은 ‘한 제자, 두 제자, 세 제자, 열두 제자, 칠십인 제자’ 등이 있다. 제자들과의 화계는 아무래도 엄격성이 있어야 하므로 격식성이 가장 강한 ‘해라↔하십시오’가 적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을 택하실 때 어부인 시몬

23)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화계를 보면 『공동번역 신약성서』(1971)에서는 ‘하오-하십시오’, 『공동번역 성서』(1977)에서는 ‘해라-하계’,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1999)에서는 ‘해라-하계’로 수정 번역해 왔다. 1977년도에 신구교가 공동으로 번역하면서 예수님의 존대법 발화에 반발하여 반말체인 ‘해라체’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법정이라는 점과 민주주의의 교육을 받고 자란 새로운 독자층을 위해서라도 고압적 화계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과 안드레를 부르시고(마 4:19; 막 1:17; 눅 5:10), 세리인 레위(마태)를 부르시는 상황(마 9:9; 막 2:14)에서는 나이 등을 고려하여 예문 (4)처럼 개인적인 대우를 어느 정도 부여한 ‘하오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4) ㄱ.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자 (『공동개정』 마태 4:19)
  -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그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소.”
- ㄴ. 예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새번역』 마 9:9)
  - 예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 3.1.2. 예수님과 병자들

복음서에는 많은 병자들인 ‘악성피부병(나병, 한센병) 환자, 중풍병자(몸마른 병든 사람), 손 오그라든 사람, 혈루증(출혈병, 혈우병) 앓아온 여인, 회당장 딸, 시각장애인, 눈먼 바디매오, 귀신들린 딸 어머니, 귀신들린 아이 아버지’ 등이 등장한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붙잡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분이다. 따라서 육체적 병마로 인해 힘들게 살아온 이들에게 격식성이 높은 ‘해라↔하십시오’보다는 격식성이 조금 낮은 ‘하오↔하십시오’나 친근감을 주는 ‘해요↔하십시오’가 더 좋을 것이다.<sup>24)</sup>

<표 3> 한국어 성경의 병자 유형 명칭과 화계(예수↔병자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가톨릭)
나병환자 해라↔하십시오	나병 환자 해라↔하십시오	나병환자 해라↔하십시오	나병 환자 해라↔하십시오
중풍병자 → 해라	중풍병 환자 → 해라	중풍병자 → 해라	중풍 병자 → 해라
혈루증 여자 → 해라	혈루증 여자 → 해라	하혈병 여자 → 해라	혈루증 여자(마태); 하혈하는 여자(마가, 누가) → 해라

24) 병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권능자임을 알기에 ‘하십시오’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지만 낮은 사람들에게 나이와 지위 등을 무시하고 ‘해라체’의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의 성경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신성만 강조하는 예수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자비로 다가갔듯이 기독교도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가톨릭)
두 맹인 해라↔하십시오	눈먼 두 사람 해라↔하십시오	소경 두 사람 해라↔하십시오	눈먼 두 사람 해라↔하십시오
손이 마른 사람 → 해라	손이 오그라든 사람 → 해라	손이 오그라든 사람 → 해라	손이 오그라든 사람 → 해라
가나안 여자(마태); 귀신들린 딸을 둔 여자(마가) 해라↔하십시오	가나안 여자(마태); 악한 귀신들린 딸을 둔 여자(마가) 해라↔하십시오	가나안 여자(마태); 악령들린 딸을 둔 여자(마가) 해라↔하십시오	가나안 부인(마태);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여자(마가) 해라↔하십시오
맹인 두 사람(마태); 맹인 거지 바디매오(마가); 맹인 한 사람(누가) 해라↔하십시오	눈먼 두 사람(마태); 바디매오라는 눈먼 거지(마가); 눈먼 사람(누가) 해라↔하십시오	소경 두 사람(마태); 바르티매오라는 앞 못보는 거지(마가); 어떤 소경(누가) 해라↔하십시오	눈먼 두 사람(마태);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마가); 어떤 눈먼 이(누가) 해라↔하십시오

예수님과 병자들의 대화에서는 <표 3>에서 보듯이 모두 ‘해라↔하십시오’의 화계를 보여준다. 병자들은 예수님께 ‘하십시오체’를 사용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해라체’보다는 ‘하오체’나 ‘해요체’를 사용하는 것이 정감과 친근감을 주는 주님의 모습일 듯싶다.<sup>25)</sup>

- (5) ㄱ.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애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성경』 마가 2:5) → “이보시오, 그대는 죄를 용서받았소.”
- ㄴ.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니라.”(『새번역』 막 3:3) →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시오.”
- ㄷ.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공동번역』 마가 5:34) → “여인아, 그대 믿음이 그대를 살렸소.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시오.” → “여인이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살렸어요.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세요.”<sup>26)</sup>

25) 현대인들은 격식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두루높임 표현인 ‘해요체’를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독자층을 고려하여 보다 친밀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수님도 ‘하오체’ 대신 ‘해요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6) 대명사로 ‘그대’와 ‘당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화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예문 (5ㄱ), (5ㄴ)에서 보듯이 ‘하오’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5ㄷ)에서처럼 ‘하오’와 ‘해요’가 모두 가능할 수 있다.<sup>27)</sup>

### 3.1.3. 예수님과 무리(사람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다. 인격자로서의 예수님이 다양한 부류가 모인 군중에게 ‘해라’의 반말체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성경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정경으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둔다면 무리를 대상으로 대화하는 것은 ‘하십시오↔하십시오’가 좋을 것이다. 다만, 몇몇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 등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백부장, 삭개오 등에게는 ‘하오(해요)↔하십시오’가 무난할 것이다.

(6) 예수께서는 말을 전해 준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 들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공동개정』 마태 12:48-50)

→ 예수께서는 말을 전해 준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 들인가요?” 하고 물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오.”

(7)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 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새번역』 눅 19:5) →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올려다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 어서 내려오시오. 오늘은 내가 그대의 집에서 묵어야겠소.”

(8)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새번역』 눅 19:8)

앞의 예문 (6), (7)에서처럼 예수님은 개별적인 발화에서는 ‘해라’ 반말체보다는 적당한 격식체인 ‘하오체’가 좋으며, (8)의 예문의 삭개오처럼 사람들은

	하십시오	하오	하계	해라
2인칭 대명사	어르신, 선생님, 주님	당신, 그대	그대, 자네	너
3인칭 대명사	그분, 이분, 저분	그이, 저이, 이이		개, 애, 재
감탄사			이보게, 여보게	

27) 반드시 청자가 여성이라 그런 것은 아니다. 조지윤(2010)은 여성 신학적 기준을 설정하여 양성평등적 존대어 번역이 성서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지윤, “양성평등적 번역 선교: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대화의 존대법 번역”, 『선교와 여성신학』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10).

‘하십시오체’로 예수께 발화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특수한 상황이 있다. 예수님이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웃으며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 상황에서의 발화가 있다. 이는 문법적인 화계가 아닌 담화론 차원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표 4> 특수한 상황에서의 화계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가톨릭)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모욕)	해라	해라	해라	해라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예수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표 4>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하는 발화로 ‘해라체’를 사용한 것이고, 예수님 좌우에 두 명의 죄수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욕하는 발화이므로 ‘해라체’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sup>28)</sup>

마가복음 외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마 27:42-43; 눅 23:35)과 ‘군인들’(눅 23:37)의 발화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발화로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다.

### 3.1.4.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공관복음서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학자들(서기관들), 바리새파인들, 바리새파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사두개파인들, 유대 지도자들, 율법교사, 회당장, 대제사장’ 등이다. 당시 유대인의 최고 기관인 종교재판소(종교 문제, 성경 해석)에 소속된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파인들로 구성된 서기관들과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사두개파인들, 그리고 일반인들의 대표이지만 유대가문의 일원으로 구성된 장로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대화의 화계는 ‘해라↔하십시오’보다는 ‘하오↔하십시오’가 타당할 것이다. 다만, 예수님과 대제사장 간의 대화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공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화계를 보이면

28) 누가복음 23:39-42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는 예수님을 모독하며 ‘해라체’를 사용하지만, 다른 죄수 하나는 옆의 죄수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 5>와 같다. 공관 복음서 모두 『개역개정』에서는 ‘해라↔해라’, 『새번역』에서는 ‘하오↔하오’, 『가톨릭성경』은 ‘해라↔하오’로 공통된 화계를 사용하였다. 다만, 『공동개정』은 ‘해라↔하계’, ‘해라↔해라+하계’를 사용하였다.

<표 5> 공관복음에 나타난 ‘예수-대제사장’의 화계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가톨릭)
마태복음	해라↔해라	하오↔하오	해라↔해라+하계 <sup>29)</sup>	해라↔하오
마가복음	해라↔해라	하오↔하오	해라↔하계	해라↔하오
누가복음	해라↔해라	하오↔하오	해라↔해라+하계	해라↔하오
요한복음	→해라	→하오	→해라	→해라

- (9)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sup>30)</sup>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개역개정』 막 14:61-62)
- (10)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문 채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제장은 다시 “그대가 과연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렇다. 너희는 사람이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공동개정』 마가 14:61-62)
- (11)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

29)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해라+하계’의 화계를 사용하고 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마 26:63); “자, 말해 보아라. 그대가 그리스도인가?”(눅 22:67)

30) ‘-(느)니라’는 (에스러운 표현으로) 해라할 자리에 쓰여, 진리나 오래 있는 사실을 가르쳐 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임. 『개역개정』에는 옛말이나 에스러운 부류의 종결어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화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하십시오	하오	하계	해라
에스러운 표현	-(사옵)나이다 -소서			-노라/-도다 -느니라
옛말	-리(니)이다 -리(니)이까?			

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새번역』 막 14:61-62)

(9)-(11)의 예문은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대화인데, 이에 대한 화계를 보면 (9)는 ‘해라↔해라’이고, (10)은 ‘해라↔하계’이고, (11)은 ‘하오↔하오’이다. 공회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해라체’가 당연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도 대제사장에게 동일한 화계인 ‘해라체’로 응수하는 것은 원천 본문의 기능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스코포스 이론에 의하면 번역의 쌍방적인 역동성과 화용론적 목적을 강조함으로써 원천 본문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번역과정, 대상 본문과 번역자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sup>31)</sup> 당시 공회가 열리는 상황과 청중을 의식하고, 기독교 공동체의 독자를 고려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하오체’가 좋을 것이다. 요즘 법정의 용어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욱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나이트 피고인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인들의 독자를 고려해 ‘해라체’나 ‘하계체’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거짓 증언으로 예수를 몰고 가는 대제사장의 경멸과 조소가 섞인 발화는 ‘하십시오체’보다는 ‘하오체’가 적당할 것이다. 예수님 역시 당시 최고 종교재판소인 산헤드린 공회에 서신 점을 감안하여 대표자인 대제사장에게 ‘해라체’보다는 ‘하오체’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sup>32)</sup>

### 3.1.5. 예수님과 빌라도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다스리던 총독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는 법정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 판결해야 하는지 심문하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빌라도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거짓 메시아’로 몰아 죽이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기에 굳이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데 고압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없다. 참고로 공관복음서에 나

31) 조지윤(2009)을 참고하였으며, 이는 번역문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상황과 독자층을 고려하는 제반 요소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135.

32) 조지윤(2008)은 당시 대제사장의 발화는 유대교의 경건한 완곡어법을 사용함으로써 거만과 자기 의를 드러내고 긴장감을 전달하기에 좋은 ‘하오체’ 사용이 좋다고 하고, 아울러 예수님도 공적인 법적 상황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래의 심판자로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선포하는 발화가 되어야 하며, 대제사장과와의 문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오체’ 사용이 좋다고 했다. 조지윤, “산헤드린에서 진행된 예수의 재판-청자 존대법 번역 문제-”, 633-642.

타난 예수님과 빌라도의 화계를 보이면 <표 6>과 같다.

<표 6> 공관복음에 나타난 '예수-빌라도'의 화계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가톨릭)
마태복음	해라↔해라	하오↔하오	해라↔하게+해라	해라↔하오
마가복음	해라↔해라	하오↔하오	해라↔하게+해라 <sup>33)</sup>	해라↔하오
누가복음	해라↔해라	하오↔하오	해라↔해라	해라↔하오
요한복음	해라↔해라	하오↔하오	해라↔하게+해라	해라↔하오

- (12) ㄱ.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  
 하였소.”(『새번역』 막 15:2)
- ㄴ. 빌라도는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  
 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공동개정』  
 마가 15:2)
- ㄷ.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하고 물  
 자, 그분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성경』 마가 15:2)

위의 예문은 법정에서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대화이다. (12ㄱ)은 ‘하오↔하오’이고, (12ㄴ)은 ‘해라↔하게’, 그리고 (12ㄷ)은 ‘해라↔하오’로 화계가 모두 다르다. 이 역시 당시 상황과 독자층을 고려한 화계 설정이 필요하다.<sup>34)</sup>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지만 피고인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등 기적을 베푸는 능력에 대해 이미 들은 바가 있기에 평범한 사람이 아닌 예수께 반말이나 낮춤말인 하계체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법정인 점을 감안하여 독자들을 고려해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것도 예수를 모욕하고 정죄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며, 대체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답답할 정도로 아무 대답이 없는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조소와 비아냥거리는 격식 있는 심문의 발화가 필요

33) 마가복음을 비롯하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빌라도가 예수께 심문하는 발화가 두 번 나오는데 본문의 예문 (12ㄴ)처럼 첫 번째 발화에서는 ‘-는가?’처럼 ‘하계체’를 사용했지만 두 번째 발화에서는 ‘-느냐?’처럼 ‘해라체’를 사용했다.

34) Nida and Taber (1969)는 독자는 미래의 새로운 세대의 언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어 높임법의 화계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격식의 전통을 수용하는 독자 공동체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 A. Nida and C.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Brill: Leiden, 1969), 125.



하므로 ‘하오체’의 화계가 적당할 것이다. 예수님 역시 군중에 끌려가는 총독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당시 총독의 위상과 재판관의 예우를 고려해야 하므로 ‘하오체’가 좋을 것이다.

### 3.2. 예수님 외의 화계 유형과 분석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발화 유형과 화계가 있다. 이를 표로 보이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발화 유형과 화계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가톨릭)
제자⇔제자	하계	하계	하계	하계
어떤 사람들→제자들	해라	하오	하오	하오
베드로⇔대제사장 하녀	→ 해라 ← 해라	→ 해라 ← 해요	→ 하오 ← 해요	→ 하오 ← 해요
베드로⇔결의 사람들	→ 해라 ← 해라	→ 하오 ← 하오	→ 하오 ← 하오	→ 하오 ← 하오
유다→대제사장 등이 보낸 사람들	해라	하오	해라	하오
사람들→바디매오	해라	하오	해라	하계
대제사장→무리	해라	하오	하오+하십시오	하십시오
빌라도⇔무리	→ 해라 ← 하십시오	→ 해요+하오 ← 하오	→ 해라 ← 하오	→ 하오 ← 하오
대제사장 하녀→결의 사람들	해라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요
몇 사람→사람들	해라	하오	해라	하계
어떤 사람→사람들	해라	하오	하오	하오
여인들⇔서로	해요	해라	해요	해요
천사→여인들	해라	하오	해라	해라
헤롯⇔헤로디아 딸	→ 해라 ← 하십시오	→ 해라 ← 하십시오	→ 해라 ← 하십시오	→ 해라 ← 하십시오
헤로디아⇔딸	→ 해라 ← 하십시오	→ 해라 ← 해요	→ 해라 ← 해요	→ 해라 ← 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 간의 발화 유형을 분류하면 우선 제자들과 관련된 발화와 일부 사람에서 많은 사람에 이르는 무리와 관련된 발화,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화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3.2.1. 제자들과 관련된 화계

제자들과 관련된 화계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제자들 간의 대화와 나귀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발화한 내용을 들 수 있다.

- (13) ㄱ.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새번역』 막 10:26)
- ㄴ.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왜 나귀를 풀어 가오?” 하고 물었다. (『공동개정』 마가 11:5)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으로 엄격하고 장중한 격식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예수님 이외에 제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것이 독자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자들끼리도 격식체인 예사낫춤의 ‘하계체’보다는 두루낫춤의 ‘해체’를, 그리고 일반인들은 ‘하오체’보다는 ‘해요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13)의 예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14) ㄱ.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하고 서로 말하였다.
- ㄴ.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왜 나귀를 풀어 가요?” 하고 물었다.

다음으로 베드로와 유다의 발화가 있다. 우선 베드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신 것을 보고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들어갔다가 하녀를 만나 대화하는 발화가 있다.

- (15) ㄱ.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뻔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 뜰로 나갔다. (『새번역』 막 14:67-68)
- 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

를 하는거요?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소.” 하고 부인하였다.  
 (『공동개정』 마가 14:67-68)

대제사장 하녀와 베드로의 대화의 화계를 보면 (15ㄱ)은 ‘해요↔해라’이고, (15ㄴ)은 ‘해요↔하오’인데, 베드로가 하녀에게 하는 말은 우리 정서상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건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네.”처럼 ‘하계체’가 좋을 것이다.<sup>35)</sup>

베드로와 일반 사람들의 대화의 화계는 기존 한국어 성경에서 『개역개정』을 제외한 3개의 성경은 ‘하오↔하오’를 사용하였는데 ‘해요↔해요’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 역시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에게 ‘해요’를 사용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 3.2.2. 대제사장, 빌라도, 무리(사람들)

대제사장과 무리, 빌라도와 무리의 화계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거짓 증언으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공회에 모인 많은 무리로부터 예수님을 정죄하는 동의를 구하는 발화이므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반면에 빌라도는 균중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무리에 이끌려 가는 상황이므로 아래 예문 (16ㄱ)처럼 ‘하오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무리 역시 빌라도를 압박하는 균중심리를 적용하는 장면이므로 ‘하십시오체’보다는 ‘하오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16) ㄱ.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거듭 소리 질렀다. (『성경』 마가 15:12-13)
- ㄴ. 빌라도가 “도대체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공동개정』 마가 15:14)

다음으로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앞을 못 보는 거지 바디매오가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는 장면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불러 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사람들이 바디매오에게 발화한 내용이다.

35)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하녀는 일종의 노비이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양반은 노비에게 ‘해라체’를 사용했지만, 일반인은 노비에게 ‘하계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하녀에게 ‘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17) ㄱ.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새번역』 막 10:49)
- ㄴ.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그들이 소경을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공동개정』 마가 10:49)
- ㄷ. 예수님께서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서 당신을 부르시네.”(『성경』 마가 10:49)

동일한 내용에 대한 발화의 화계가 모두 다르다 (17ㄱ)은 ‘하오’를 (17ㄴ)은 ‘해라’를 (17ㄷ)은 ‘하게’를 사용하고 있다. 바로 앞 절인 ‘막 10:48’에서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든다고 거지 바디매오를 꾸짖은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이 발화는 바디매오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이므로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바디매오에게 말한 듯싶다. 따라서 ‘하게체’가 적당할 것이다.<sup>36)</sup>

이외에 일부 사람들의 발화가 있다. 우선, 대제사장 하녀가 곁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사용한 화계와 예수님을 장사한 후에 안식일이 지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등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서로 대화한 화계는 아래 예문 (18)처럼 ‘해요’가 좋을 것이다.

- (18) ㄱ.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하고 말하였다. (『성경』 마가 14:69)
- ㄴ.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러내 줄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말을 주고 받았다. (『공동개정』 마가 16:3)

다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과 어떤 사람의 발화가 있다.

- (19) ㄱ.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몇이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공동개정』 마가 15:35)

36) 당시 병자들, 특히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구걸 행위를 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기에 사람들은 대개 반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지금 장면은 예수님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바디매오에게 용기를 주는 발화이므로 ‘반말체’보다는 조금 점잖은 ‘하게체’가 좋을 것이다.

- 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꼭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두고 봅시다.” (『새번역』 막 15:36)

위의 예문에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인데 (19ㄱ)은 격식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만, (19ㄴ)의 예문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 ‘하오체’도 좋지만 (20ㄴ)처럼 ‘해요체’를 사용해도 될 것이다.

- (20) ㄱ. “보세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요.”  
 ㄴ.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두고 보지요.”

### 3.2.3. 기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발화하는 장면과 헤롯과 헤로디아 딸과의 대화 장면, 그리고 헤로디아와 딸과의 대화의 장면에 대한 화계가 있다. 우선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난 장면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흰옷 입은 청년 혹은 젊은이로 소개하고 있으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주의 천사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흰옷을 입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알려 준 분이 마가복음처럼 청년의 발화라면 『새번역』처럼 ‘하오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이지만 그 신분이 천사라면 그 위엄과 격식을 고려해서 ‘해라체’가 좋을 것이다.

헤롯왕과 헤로디아의 딸과의 대화는 <표 7>에서 보듯이 4개의 성경 모두 ‘해라↔하십시오’로, 헤로디아와 그의 딸과의 화계는 『개역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라↔해요’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그대로 수용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아래 예문 (21)에서처럼 헤로디아 딸이 그의 어머니에게는 ‘해요체’를 사용하고, 왕에게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21) ㄱ.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레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새번역』 막 6:24)  
 ㄴ.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와 “지금 곧 세레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공동개정』 마가 6:25)

마가복음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예수↔세레자 요한’과의

대화(마 3:14-15), ‘예수↔마귀(악마)’와의 대화(마 4:3-10; 눅 4:3-12), 그리고 ‘예수↔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와의 대화(마 20:21)가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화계 유형과 분석<sup>37)</sup>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 (가톨릭)	화계 제안
예수↔세례자 요한(마태복음)	→해라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오 ←하십시오
예수↔ 마태복 마귀 음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하오	→해라 ←하오	→해라 ←하오
예수↔ 누가복 마귀 음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하오	→해라 ←하오	→해라 ←하오
예수↔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마태복 음)	→해라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요 ←하십시오

#### 4.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성경의 화계를 분석·고찰함으로써 올바른 화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4개의 성경인 『개역개정』(1998), 『새번역』(2004), 『공동개정』(1999), 『성경』(가톨릭, 2005)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관복음서 중 비유의 말씀이 적어 다양한 화계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화계를 비교 제시하고, 크게 예수님과 관련된 화계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간의 화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발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수님과 관련된 발화 유형은 ‘예수님↔제자들’, ‘예수님↔병자들’, ‘예수님↔무리(사람들)’, ‘예수님↔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을 이룬다. 이외에 특별한 경우로 ‘예수님↔대제사장’, ‘예수님↔빌라도 총독’과의 발화가 있다. 기존 한국어 성경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격식 있는 화계를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해라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37) 지면 관계상 이에 대한 설명은 따로 보이지 않고 표의 화계 제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격식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획일적인 화계 사용으로 일관한 점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제자들과의 화계는 아무래도 엄격성이 있어야 하므로 격식성이 가장 강한 ‘해라체↔하십시오체’가 적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병자들을 붙잡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분이다. 따라서 육체적 병마로 인해 힘들게 살아온 이들에게 격식 있는 ‘해라↔하십시오’보다는 ‘하오↔하십시오’나, 친근감을 주는 ‘해요↔하십시오’가 더 좋을 듯싶다. 그리고 주로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십시오↔하십시오’가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해라체’보다는 인격적인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으므로 ‘하십시오체’가 적합할 것으로 본다. 다만, 개별적인 사람을 상대로 하는 백부장이나 삭개오,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기 전의 시몬, 마 등에게는 ‘하오↔하십시오’가 무난할 것이다.

화계는 획일적인 격식체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담화론이나 화용론의 화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회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상황이거나, 법정의 빌라도 앞에서 재판관을 받는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에서 사람들이 비웃으며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 상황에서의 화계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이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간의 화계가 있는데, ‘천사↔여인들’, ‘왕↔신하’, ‘주인↔하인’, ‘어머니↔딸’ 등 위계 질서가 분명한 경우는 ‘해라↔하십시오’이지마는 그 외에는 화자와 청자, 그리고 제 삼자 등 주변 상황과 여러 가지 사회적·문화적 요인, 대화 장면의 공식성, 대화자의 심리적 의도 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화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Keywords)

화계, 격식성의 원리, 발화 유형, 담화론, 화용론.

Scale of politeness, Formal principle, Utterance types, Discourse, Pragmatics.

(투고 일자: 2014년 2월 11일, 심사 일자: 2014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3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공동번역 신약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1.
-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강정희, “외국인과 해외동포를 위한 성경 번역에 대한 제안”, 『성경원문연구』 24 (2009), 132-156.
- 고영근, “현대국어의 존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1974), 66-91.
- 김석득, “국어형태론”, 『연세논총』 4 (1966), 6-7.
- 김석득, “현대 국어 존대법의 일치와 그 확대 구조”, 『국어국문학』 41 (1968), 106-112.
- 민현식, “한국어의 발달과 성서의 영향”,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문화에 끼친 영향』(2011), 188-235.
- 박덕유, 『학교문법론의 이해』, 서울: 역락, 2009.
- 박덕유, 『한국어 문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문사, 2013.
- 박승빈, 『조선어학』, 서울: 통문관, 1935.
- 박영순, “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국어국문학』 72-73 (1976), 47-65.
- 박영순, 『한국어 통사론』, 서울: 집문당, 1985.
- 박영환, “『성경전서 새번역』의 국어학적 연구-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0 (2012), 121-139.
-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 『문법』, 서울: 두산, 2003.
- 서정수, “현대 국어의 대우법 연구”, 『어학연구』 8:2 (1972), 78-97.
- 서정수, 『존대법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1984.
- 성기철, “국어 존비법 연구”, 『논문집』 4 (1970), 35-57.
- 성기철, “현대 국어 주체 대우법 연구”, 『한글』 184 (1984), 81-111.
- 성기철, 『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교육』, 서울: 글누림, 2007.
- 신창순, “현대국어 존대법의 개설”, 『문리대학보』 5 (1962), 460.
- 이관규, 『학교 문법론』, 서울: 월인, 2004.
- 이맹성, “Varation of Speech Levels and Interpersonal Social Relationship in Korean”, 『한산 이종수 박사 송수논총』 (1973), 111.
- 이익섭, “국어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1974), 39-64.
- 이승녕, “경어법 연구”, 『진단학보』 25 (1964), 309-366.
- 이희승, 『새문법』, 서울: 일조각, 1968.



-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평서법 문장 종결형 고찰”, 『성경원문연구』 25 (2009), 171-192.
- 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의 문체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2011.
- 정렬모, 『신편 고등국어 문법』, 서울: 한글 문화사, 1946.
- 조지윤, “산헤드린에서 진행된 예수의 재판-청자 존대법 번역 문제-”, 『신약연구』 7:4 (2008), 619-648.
-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27-148.
- 조지윤, “양성평등적 번역 선교: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대화의 존대법 번역”, 『선교와 여성신학』,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10.
-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1959.
- Nida, E. A. and Taber, C.,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Brill: Leiden, 1969.
- P. A. Noss, “Dynamic and Functional Equivalence in the Gbaya Bible”, *Notes on Translation* 11:3 (1977), 24-29.

<Abstract>

##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the System of Honorific Verb Endings for Korean Translations of the Gospel of Mark**

Prof. Deok-yu Park  
(Inha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system of Korean honorific verb endings in four broadly accepted Bible versions, namely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2004), Common Translation Revised Version (1999), and Seonggyeong (2005).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honorific verb endings phenomena of the Gospel of Mark in the existing Korean translations, and propose the proper Korean verb endings. Among the Synoptic Gospels, the focus was placed on the Gospel of Mark as this book with less metaphors is more suitable for analyzing various honorific verb endings in Korean translations. Each translation was compared and classified, and then the honorific verb endings was broadly divided into discourses concerning Jesus and discourses between people other than Jesus for consideration.

Since the Gospel of Mark is centered around ev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public life of Jesus, large proportion of its text is taken up by Jesus' utterance. The utterance types related to Jesus takes place mostly between 'Jesus and the disciples', 'Jesus and the sick', 'Jesus and the crowd', and 'Jesus and the religious leaders'. Besides these, there are special instances like the utterance between 'Jesus and the high priest' and 'Jesus and the Pilate'. Existing Korean Bible highlights Jesus as Messiah by using a formal form of honorifics. In general, Jesus uses directive expression of 'haera' to everyone while other people use respectful expression of 'hasipsio' to Jesus.

But it should be sublated to keep adhering excessively to principle of formality and to use it uniformly. First of all, the directive expression of 'haera' and the respectful expression of 'hasipsio' are suitable for what are to be a supposedly strict relationship between Jesus and His disciples. Then, Jesus took deep compassion and bestowed mercy on the sick he encountered. In that sense, a kind of welcoming expression of 'hao-hasipsio' or a little bit more welcoming expression of 'haeyo-hasipsio' would be better than directive expression

‘haera-hasipsio’ for dialogues with the sick who suffer from physical diseases. As for the crowd, the expression of ‘hasipsio-hasipsio’ will be better or suitable. Instead of the directive expression ‘haera’, the ‘hasipsio’ expression reveals the more personal side of Jesus so the latter expression will be more appropriate to convey God’s Word to the crowd.

Instead of 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formality principle, the honorific verb endings need to be applied, in special circumstances, according to the scale of politeness of the discourse or pragmatics. For instance, the honorific verb endings need to b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ituations Jesus is in as in the court hearing with the high priest before the Sanhedrin, when being questioned by the Pilate, and when people mock, curse and even beat him when he is arrested, tortured and crucified on the cross. In addition, I have presented the need to apply diverse levels of ness in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speaker-listener relationship, the third person, etc and various sociocultural factors. In case of discourses among people that do not involve Jesus, the directive ‘haera’ - the respectful ‘hasipsio’ may be appropriate form of politeness in hierarchical/vertical relationships such as ‘king-subject’, ‘master-servant’, and ‘father-son’ etc.